

잇따른 민주당 공천 잡음...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요동

광현, 영광 경선 후보자 선정 과정 반발...민주당 탈당 후 혁신당 입당 조국혁신당, 영광·곡성후보 내세워 민주 '경선=당선' 공식 깨질지 관심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덧발'인 이들 지역은 그동안 '경선이 곧 당선'으로 여겨졌지만, 조국혁신당 등장과 함께 민주당 경선 잡음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장세일 후보가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오만평·장현·정광일·정원식 후보가 경선 후보자로 신청을 마쳤으며, 5일 최종 경선 후보가 결정된다.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이 오는 6·7일 강대광·유근기·조상래 등 3명에 대한 경선을 치르고, 조국혁신당은 5일 박웅두·손경수 등 2명을 대상으로 최종 경선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최종 후보 확정 등 선거전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여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영광군수 경선 후보자 선정 과정에 반발한 후보는 탈당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고, 곡성군수 경선 방식에 반발한 후보는 무소속 출마로 돌아

서는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민주당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공천 부적격자 배제를 항의했는데, 사퇴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당한·당구상·파렴치·민생범죄에 해당하는 공천 부적격자가 영광군수 경선 후보자 심사를 통과한 것을 항의하고, 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문자로 기각통보를 받았다"면서 "평생을 헌신한 정당이 바른 주장을 하는 후보자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에 대해 군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주장한 뒤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한 장 후보가 지역 조직력 측면에서 민주당보다 약세를 보여

은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면서, 선거 판세도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장 후보는 최근 영광군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장세일 후보에 이은 2위를 기록하는 등 탄탄한 지지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장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섬에 따라 민주당 텃밭인 영광에서 '경선=당선'이라는 기존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곡성 역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정현대 곡성군수 예비후보는 100% 국민 경선 방식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정 예비후보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과 곡성

의 민주당 공천 경선 방식이 다른 것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며 "중앙당이 특정 후보를 위해 기존의 관리당원 50%+국민경선 50% 경선방식을 버리고 100% 국민 참여 경선을 추진하는 것은 꿈수 정치이자 민주당 관리당원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의 탈당에 따라 민주당 곡성군수 경선은 강대광·유근기·조상래 예비후보 간 3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앞서 치러진 민주당 영광군수 경선은 당원 50%·국민 50%로 진행된 반면 곡성군수 경선은 100%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해 일부 후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추석 상차림 배워요"

4일 광주 북구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다문화 가정 전통음식 체험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차례상 차리는 예절을 배우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추석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광주시, 합동 점검반 구성 백화점·대형마트 등 집중점검

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진행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규칙 적용 대상 제품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표시 적정표기, 무단표기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포장과 올바른 분리배출 표기가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확대...국비 29억 확보

청년일자리스테이션·직장적응 지원 등 2개 사업 진행

광주시가 청년의 구직난을 사전 예방하고, 취업과 직장 적응을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프로젝트-직장 적응지원 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총 29억 6000만원 규모의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39세 광주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단념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업을 돕는 '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직장 적응지원' 등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에 정부의 '직장적응지원 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했으

며, 북구와 공동으로 신청한 공모에도 선정돼 1억 원을 신규 확보했다. 광주시는 이미 확보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비 26억 8000만원 등을 포함해 올해 국비 29억6000만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한다.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청년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거점공간 2개소를 마련해 실업 초기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청년 고용정책과 연계해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경력 재설계, 취업 전 준비, 취·창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입사 초기 청년의 장기 재직을 목표로 직장 내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과 온보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은 지역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갑질예방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교육, 기본 오피스교육, 심리상담 등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로 추가 확보한 사업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 1000여명에게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 북구와 공동으로 북구지역 산업단지 재직자 180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온보딩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순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청년친화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년의 장기재직을 돕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일하기 좋고, 정착하고 싶은 광주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타워크레인·추락 사고 예방 나선다

10월 7일까지 건설공사장 91곳 안전난간·안전장비 착용 등 점검

광주시는 "10월 7일까지 건설공사장 추락 사고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최근 공사규모 100억원 미만 중규모 건설공사장의 추락사고와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의 사고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광주지역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29개소를 포함한 건설공사장 91개소로, 광주시와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전

문가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확인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및 추락방지 시설 적정 설치 여부 ▲안전장비 착용 및 관리상태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배북한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 건설공사장 사망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추락 사고"라면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제거, 추락 사고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해남군

해남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해남군